

## 원칙적으로 終身制가 바람직하다

李 萬 甲

(仁荷大 社會學科)

大學教授의 任用을 終身制로 할 것이냐 契約制로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논의하는 데에는 주로 두 가지 문제가 미리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첫째는 大學教授가 무슨 역할을 하기로 되어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역할을 만족스럽게 수행하는 데 있어서 韓國의 대학교수는 어떤 곤란 또는 위협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 문제가 충분히 검토되면 大學教授의 任用을 어떤 방법에 의해서 실시할 것인가 하는 原則은 어느 정도 분명해지리라라고 생각한다.

### 大學教授의 역할

大學教授가 하기로 되어 있는 일은 고등지식의 교수와 생산이다. 고등지식은 그 분야에서 탐구되어 온 지식 중에서 가장 보편적이고, 근원적이며, 궁극적인 지식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것은 通時間的인 동시에 通空間的이며, 깊은 동시에 넓은 것이다. 그런 지식을 바르게 교수 전달하려면 그 자신 그런 지식에 通曉해야 할 것은 두말할 것도 없는 것이다.

한편 教授는 지식을 창조할 사명을 갖고 있다. 새로운 지식을 창조하려면 그는 자기가 다루고 있는 현상에 관한 理論과 그 현상을 연구할 수 있는 方法을 잘 알아야 한다. 理論과 方法에 관한 體系的인 지식을 갖지 못한 사람인데도 비상한 直觀力을 갖고 중요한 지식을 창조한 사람이 없지 않지만 이론과 方法을 어느 정도 잘 알고 있어야만 지식을 창조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고등지식을 창조한 사람은 그 자신 大學에서 지식을 창조하는 훈련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그런 자격을 가진 사람이 博士課程을 밟고 博士學位를 수여받은 사람인 것이다. 大學教授는 반드시 博士學位를 소지한 사람이 되어

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그에 상당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두 가지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大學教授는 그 나름대로 필요한 倫理的 姿勢를 취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 우선 그는 그가 놓여 있는 社會의 基本的 倫理에 저촉되는 행동을 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의 知的 活動은 자기의 개인적 입장을 넘어서서 모든 시대에, 또 모든 계층의 사람에게 통하는 보편적인 價値를 추구하는 目的에 부합되어야 한다.

그의 주요한 활동은 知性的인 判斷에 의해서 전개되어야 한다. 知性的의 중요한 특징의 하나는 批判的이라는 데 있다. 批判的 精神이 없이는 知性은 지성다울 수가 없다. 비판은 價値基準에 입각해서 이루어진다. 비판의 대상이 순수한 學問的인 내용이라면 거기서의 價値基準은 그 학문 분야에서 眞理라고 인정되는 認知的 價値體系에 근

거를 둔다. 그러나 아무리 순수한 學問의 內容이라도 그것은 필연적으로 現實社會에 생존하고 있는 개인이나 집단에게 상이한 利害得失을 가져오기 때문에 倫理的 價値를 함축하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教授는 자기의 倫理的 姿勢를 확실히 하지 않으면 바른 批判을 하기가 어렵고 자기의 所論에 대한 批判에 대응하기도 힘들다.

교수의 倫理的 姿勢가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를 단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그의 윤리적 자세는 人類의 平和와 共同的인 번영을 다짐하는 倫理的 原則에 부응하는 동시에, 자기의 주장의 學問的 價値를 존중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남의 주장에 대해서도 그것이 학문적 가치를 가질 수 있다는 전제 밑에 존중할 줄 알아야 한다. 이리하여 교수가 바람직한 學問的 活動을 할 수 있게 되려면 자기 분야에 대해서 어느 정도 깊은 지식을 가지는 동시에 상당한 教養을 갖고 자기 자신을 바르게 규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하는 것이다.

그런 能力이 요구되는 것은 教授職이 전문적 직업이기 때문이다. 專門職에 종사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자기의 직업적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자주적인 판단에 의해서 행동할 권한을 보장받는다. 그의 판단, 그의 행동에 대하여 사후에 批判을 가할 수 있어도 그의 직업적 활동에 압박을 가하거나 간섭을 할 수가 없다. 바로 그 특권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전문적 지식과 건전한 價値

判斷을 할 수 있다는 자격을 갖는 것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처음 教授로 임명될 때에는 그런 자질을 충분히 가진 사람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가 연구를 꾸준히 계속해서 자기의 직업을 충실히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노력한다는 보장은 없다. 설사 어느 정도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오늘날과 같이 科學技術이 눈부시게 발달하고, 그에 따라 社會의 양태가 달라지고 있으며, 그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인간의 生理的 樣態, 거주환경뿐만 아니라 性情이나 意識 내용까지도 신속히 변해 가고 있는 時代에서는 최신의 지식을 적절히 섭취하는 한편 자기 자신의 창조적인 연구활동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教授를 포함한 專門職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自己修練과 自己統制를 게을리하지 않는 것이 강력히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 教授가 처해 있는 社會的 條件

教授는 순수한 學問的인 내용에 관련하여 批判을 할 뿐만 아니라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學問的인 입장에서 소견을 제시하거나 타인의 주장 또는 결정에 대해서 批判을 가하기 때문에 社會的 知的 風土를 크게 좌우하는 역할을 한다. 그럴 때 그의 발언은 어떤 사람, 어떤 集團, 경우에 따라서는 政府 자체에 의해서 불리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없지 않다.

만일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자체에게 유해로운 것으로 느껴지면 權力을 행사하거나 다른 어떤 방법으로 그를 억제하고 심지어 그를 제거하려 들기까지 할 것이다. 그러므로 教授의 身分을 어느 정도 보장하여 學問의 自由를 향유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여간 긴요한 일이 아니다. 그것은 특히 경제가 뒤떨어진 사회가 발전을 지향하려고 시도하는 과정에 있을 때 더욱 절실하다. 왜냐하면 그런 社會에서는 教授가 발언할 문제가 많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경제가 뒤떨어진 社會에서 교수는 존중되어 높은 地位를 차지하기가 쉽다. 그런 사회에서는 교수가 대체로 社會上層에서 배출되기 쉽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教授의 수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기의 출신 계층인 上流階層이나 혹은 그 계층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政府에 심히 불리한 발언을 할 가능성은 비교적 적다고 볼 수가 있다. 그러나 사회가 발전하기 시작하면 教授의 출신 배경이 다양해지는 동시에 수도 많아지게 마련이다.

수가 많아지면 教授의 稀少價値는 떨어질 것이다. 그리하여 지금까지는 社會上層에 밀착하는 경향이 강했던 교수들의 生活水準이 대체로 中의 上層에서 中層에 걸치게 되어 전보다 사회 상층에 대해서 더욱 비판적으로 보게 될 가능성이 증대하게 된다. 그리하여 만일 政府가 上層의 이익을 옹호하는 경향이 보이면 날카롭게 비판하려는 태도를 나타내기 쉽다. 물론 교수

들의 批判에는 이데올로기의 先入見이 작용하거나 客觀의 妥當性을 결여한 것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떤 비판은 社會의 건전한 발전에 극히 유익한 것도 적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단일 政府當局者가 그 批判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그를 억압하거나 제거하려고 하면 批判的 精神이 약화되고 知的 活動이 위축되어서 탄력 있는 社會의 발전을 해칠 염려가 없지 않을 것이다. 교수의 知的 活動을 위축케 하는 조치는 비단 정부에 의해서만 취해지는 것은 아니다. 私立大學을 경영하는 데 크게 관여하는 校主나 財團들도 교수의 발언이나 行動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어떤 제재를 가한다는가 불리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에 대한 개인적 충성심이 부족하다고 해서 어떤 기회를 포착하여 제거하려 들 수도 있는 것이다.

어떤 교수를 가리켜서 御用 教授라고 부르거나 하면 반대로 政治教授로 낙인을 찍고 몰아부치는 일이 자주 발생하는 것은 社會가 아직 발전하지 못한 단계에서가 아니라 어느 정도 경제발전이 이루어져서 사회가 변화를 겪는 단계에서 볼 수 있는 것이다. 거기에서는 변화의 양상이 모든 사람에게 조금씩 다른 의미를 갖는 것으로 인식되기 쉽고, 따라서 그런 현상에 적절한 해석을 내리고 社會의 바른 發展方向을 제시할 책무를 가지고 있는 知性人으로서 教授들도 날카로운 관심을 갖고 상황을 관찰하고 분석하는 가운데

자연히 어떤 층, 어떤 단체에 불리하고, 다른 층, 다른 단체에게 유리한 발언을 하게 되니까 그런 평판을 받는 사람이 나오게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의 批判的인 발언이 經濟的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극을 주게 되어 社會의 葛藤이 심화되기 쉽다.

그러나 좀더 경제가 발전하여 下層人口가 대폭으로 감축하여서 피라미드형의 社會構造가 다이나몬드형으로 바뀌고 튼튼한 中產層을 중심으로 한 國民協同體가 형성되게 되면 상황은 크게 달라진다. 생활이 극히 곤궁한 사람의 수가 적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에 대한 福祉的 計劃이 실시되기 때문에 심각한 批判의 대상이 될 만한 일들이 많지 않다.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은 생산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創意的 아이디어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자유로운 의견 제시가 환영받게 되어 民主主義가 점차 뿌리를 내리게 된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 남으려면 業績爲主로 나가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일을 능률적으로 해내지 못한 사람들은 도태될 수밖에 없다. 그리하여 사회가 탄력성을 갖는 동시에 多元的이 된다. 그런 社會에서는 教授건 누구건 자유롭게 발언할 가능성이 커지며, 또 자유롭게 발언한다고 해서 그것이 體制의 유지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일은 극히 드물 것이다. 그렇게 되면 政府當局者나 學校운영 책임자도 물의를 일으키면서까지 教授의 批判을 억제하고 그를 제거하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 終身制나 契約制나

韓國은 점차 이러한 발전 단계에 접어들기 시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론조사에서 자기가 中產層에 속한다고 한 사람이 80%를 넘어서는 것은 美國의 경우 1930년대의 일이며 日本은 10년 정도 전의 일이었다. 韓國에서는 20여 년 전만 해도 응답자의 불과 25 내지 30%가 中產層이라고 했으며 나머지 대부분이 下層이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수년 전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약 80%가 中產層이라고 대답하고 있다. 이것만 가지고 韓國의 社會構造의 기본적인 형태가 10여 년 전의 日本, 또는 50년 전의 美國과 비슷해졌다고 단정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그러나, 점차 비슷해져 가고 있다고 보아도 괜찮은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만일 그렇다면 머지 않아 韓國은 工業化과정에서 겪는 진통기를 넘어설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때가 되면 教授들의 이데올로기적인 주장이나 批判이 社會적으로 크게 문제가 될 가능성은 희박해질 것이다. 어느 교수가 政府를 호되게 비판했다고 해서 그것을 전적으로 믿는 사람도 별로 없을 것이고, 믿는 사람이 나온다고 해서 社會가 크게 들썩거리지도 않을 것이다. 그리고 한 教授의 주장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다른 教授에 의해서 제시될 것이며, 國民들도 냉정하게 자기 입장에서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할 수 있을 만큼 성숙해질 것이다.

그런 시대가 되면 적어도 敎

授의 이데올로기적인 批判的 姿勢에 關係해서 敎授의 身分을 終身制로 할 것이나 契約制로 할 것이나 하는 것을 논한다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때가 언제가 될는지 확실치 않으므로, 그때까지만이라도 敎授의 身分을 어떤 형식으로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것을 논의한다면 本人은 原則的으로 終身制가 좋다고 생각한다.

그 첫째의 이유는 敎授職이 敎育과 研究를 사명으로 하는 專門職이기 때문에 한 기관에서 오랫동안 노력이 축적되어야 學風이 다져지고 성과가 나타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고 그때 그때의 형편에 따라 쉽게 敎授를 그만두게 한다거나 혹은 敎授 자신이 자리를 옮길 수 있게 되면 敎育이나 研究가 일관성 있는 계획 밑에 추진되기가 어려울 것이다. 더구나 오늘의 知識은 한 사람의 노력에 의해서만 창조되기가 어려워 여러 사람들의 협동작업이 필요하다. 그럴 경우 敎授가 쉽게 移動할 수 있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되는 것이다. 물론 협동적 작업은 契約制로 가능한 뿐더러 경우에 따라서는 계약제 밑에서 오히려 유능한 사람을 확보하여 팀을 조직화하기가 수월하다는 利點이 없지 않다. 그러나 敎授는 原則的으로 그 자리를 지킨다는 관념을 강하게 갖는다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둘째의 이유는 韓國과 같은 社會에서는 契約制를 탄력성 있

게 활용할 수 있을 만큼 學者의 市場이 넓지 않다는 것이다. 극히 유능한 학자는 계약제가 유리할는지 모르지만 그것도 일시적인 것이지 一生을 두고 보면 언제나 자기가 生産的인 學者로 있을 수 있다는 보장은 없다. 그리하여 契約時限이 짧아질 무렵에 그가 生産的이 못된다는 평이 들게 되면 그는 자리를 구하기가 극히 막연해질 것이다. 그리고 설사 계속 실력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된다면 하더라도 새로운 계약을 해야 한다면 그는 유리한 계약을 위해서 미리부터 상당한 기간에 걸쳐 노력을 하고 비학문적인 일에 정력을 소비해야 한다.

세번째 이유는 敎授가 일반적으로 世俗的인 것에 어둡기 때문에 終身制가 좋다는 것이다. 오늘날 같이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사람이 世事에 어두운 것이 美德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더라도 學問은 역시 世事와 다소의 거리를 두고 몰두해야만 깊이 있게 가꾸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契約制보다는 終身制로 하는 것이 敎授의 品性에 맞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러나 앞서 암시한 바와 같이 社會가 다이아몬드형의 構造的 形態를 갖게 되고 탄력성 있고 더욱 民主化된 社會에 있어서는 모든 大學이 終身制를 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契約制로 하는 대학이 나와도 좋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終身制를 채택하는 대학에 있어서도 非生産的인 敎授가 언제까지 자리를 고수할 수 있다는 것은 바람직

한 것이 못 된다. 그러나 그가 非生産的이라는 판정은 그를 任用한 사람에게 의해서 행해질 것이 아니라, 그가 속하는 學問的 共同體(academic community)에서 어떤 합당한 절차에 의하여 정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敎授는 專門職으로서 어디까지나 自己修練과 自己統制로 자기 향상을 도모하고 스스로를 다스려야 하기 때문에 敎수들 자신의 합의에 의하지 않고는 學問에 관련된 어떤 결정도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本稿를 끝내기 전에 主題에 다소 關係가 있다고 생각해서 개인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韓國의 大學에서는 敎授가 個人으로 활동하는 데 그치고 협동 연구를 한다고 해도 어디까지나 개인 자격으로 짧은 기간에 참여하는 데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學問이 깊고 중요한 작업을 할 수 있는 大學者의 경우에는 그가 중심이 되어 장기간에 걸친 연구작업을 할 수 있도록 연구자금의 제공과 조직 운영에 필요한 制度的 뒷받침이 있다면 중요한 知的 創造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일반 敎수에 적용되는 停年制에 구애 없이 學界에 공헌이 크고 계속 중요한 學問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大學者에 대해서는 문자 그대로 終身 그 대학에서 敎育과 研究에 계속 종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런 조치는 물론 많은 敎授들의 합의에 의해서 신중하게 정해져야 할은 두 말할 것도 없는 것이다. \*